

더 특별한 옥정호 빗꽃축제 열린다

임실군, '임실 방문의 해' 와 만나는 첫 번째 축제로 4월 5-6일 개최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한 첫 번째 축제인 옥정호 빗꽃축제가 오는 4월 5일과 6일 예년보다 더 특별한 축제로 개최된다.

임실군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빗꽃 시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 앞 광장과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에서 2025 옥정호 빗꽃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축제는 빗꽃 만개가 예상되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치러지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에서 예년보다 더 확장되고, 차별화되게 개최된다.

특히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천만관광 임실시대, 관광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로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소머리국밥과 붕어섬 시그니처인 치즈붕어빵,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여는 한우특별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비롯한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유명 트로트 가수 등이 대거 출연하는 축하공연 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축제가 개막하는 첫날의 기대감은



옥정호 빗꽃축제 포스터

남다르다. 개막식이 열리는 4월 5일 토요일에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과 국악신동 트롯요정 김다현을 비롯한 떠오르는 트롯가수 양지윤과 미스트롯 강혜연 등 트로트 대세 가수들의 대거 출연하여 빗꽃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임실 필봉농악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일요일에는 임실연예인협회와 함께하는 노래자랑,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라인댄스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옥정호 빗꽃축제의 백미는 20년 이상 된 빗나무들이 우암면 소재지부터 국사봉에 이르는 10km의 빗꽃길이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잘 알려진 곳으로, 해마다 봄이 되면 빗꽃으로 드리워진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드라이브 명소로 유명하다.

축제가 오면, 옥정호의 아름다운 빗꽃, 붕어섬의 매력과 함께 출렁다리를 건너며 봄의 정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빗꽃축제가 올해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두 번째로 열린다"며 "특히 임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첫 번째 축제인 만큼 더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한층 더 높여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남원 만든다

남원시보건소, 도·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 예방 간담회 개최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6일, 2025년 남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남원시 감염병 발생 현황(2020~2024년)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남원시 감염병 체계를 재구

축, 전북도-시군 감염 관리 부분으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추진성과 및 감염병 콘퍼런스 지방자치단체 평가 사전 대응 등의 14개 항목과 전북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감시 자료 환류, 역학 조사 지원 및 감염병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 훈련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한용재 시 보건소장은 "국민 소통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감염병 예방 사업과 철저히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치유체험농가 참가보상비 지원

순창군이 농업·농촌 치유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체험농가 참가보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 관광객을 대상으로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외 지역 거주자

로, 개별 여행객뿐만 아니라 여행사, 학교, 코데일 여행센터 등을 포함한다. 체험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는 체험비와 농가맛집 이용비 일부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체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일 체험의 경우 참가비의 50%(최대 1만5천원/인)가 지원되며, 1박 2일

체험의 경우 30%(최대 4만5천원/인)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객이 1일 최대 2개소 체험을 진행할 경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군에서 지정된 농가 중 방문할 농가와 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해당 농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농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처 확대

남원시, 3월 1일부터 관내 전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

남원시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등 시민과 소상공인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으로, 경제적 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사용처를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승수 효과란 경제 현상에서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가져와 파급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몇 배 증가로 나타나는 총 효과를 의미한다.

앞서 시는 탄핵정국에 따른 민생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7만 5,862명에게 총 228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지난 25일 기준 159억 원이 사용, 골목상권으로 지원금이 빠르게 유입하는 순환 등 영세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는 민생지원금의 취지와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3월 1일부터는 '간편 대형마트와 하나로 마트 등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의 사용 제한까지

지 풀고 관내 전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시내권에 비해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소비 불편함을 개선한 조치로, 이는 지원금 시행 효과가 수혜자 중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다각적인 사용 방안을 위해 선회한 맞춤형 대안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농·축산물 하나로 마트 등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이 대폭 해소되는 것은 물론, 사용률까지 높아져 경제적 승수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흥업과 사행성업, 도박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은 종전과 같이 사용이 제한된다.

최경식 시장은 "민생안정 지원금이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 해소 등 시민들께 실질적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생지원금의 실효성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하는 승수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대출 이자차액(4%)을 보전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융자액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융자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재료비, 인건비 등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한도로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5

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융자 대상은 순창군 내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금융기관 여신 운용 규정상 대기업 계열이 아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융자 승인 후 미상환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 업체로 규제 중인 기업, 행정상 제재를 받은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협은행 순창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남원 소재 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계약이행 통합계약서' 1종으로 간소화

남원시는 각종 계약체결 때 지역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서류 13종을 계약이행 통합계약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계약각서, 청렴 이행각서 등 모두 13종의 서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계약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부 서

류가 누락되면 보완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고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류 간소화로 복잡한 계약서류 작성에 따른 지역업체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상하수도 통합업무 추진

남원시는 지난 17일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통합해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직제를 개편하였으며 사무실은 기존 상수도사업소(월락동 오들길 56)에 마련하고 상하수도 통합업무를 추진한다.

남원시는 이번 개편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업의 계획 수립, 예산 편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월락정수장은 2024년 개량공사를 통해 일일 평균 1만 5,000m³를 생산하고 있으며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6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부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하수관거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위탁 운영중인 하수처리장등을 지도·감독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사업소는 수도행정팀, 급수시설팀, 상수도시설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으로 구성되어 소장을 포함한 5개 팀 47명이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순창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 총 9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차종별로 전기승용 50대, 전기화물 40대를 포함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등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